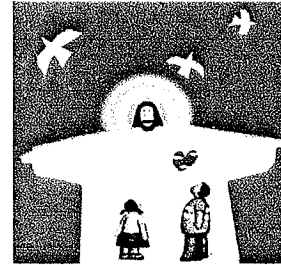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남편들이 아내에게 바라는 것, 모두 1순위.

1. 제발 화장실 변기 시트 좀 올려 놓아 주오.
올라가 있으면 내리면 되오. 남자들은 화장실에 시트 내려놓고 일 보는 경우보다 올리고 볼 일보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 알지 않소.
2. 생일, 발렌타인 데이, 기념일 같은 날마다 우리가 매번 완벽한 선물을 찾아 떠나야 하는 건 좀 아니라고 생각되오.
3. 스포츠! 남자들에겐 이걸 그냥 조수 간만이나 달이 차고 기우는거랑 똑같은거요. 좀 내버려 두면 좋겠소.
4. 쇼핑은 운동이 절대 아니오. 우리는 쇼핑이 운동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을거요.
5. 제발 울지 마오. 그거 우리에게는 협박이오.
6. 원하는 것은 좀 부탁을 하오. 부탁할 때 다음의 것도 명심해 주오.
'살짝 힌트를 쥐 봐야 소용없다' '힌트를 좀 세게 쥐도 소용없다'
'아무리 힌트를 쥐 봐야 소용없다. 그냥 말로 해라'
7. 우리는 날짜같은건 못 기억하오. 그냥 달력에다가 생일이랑 기념일이랑 다 표시해 놓아주오. 그리고 종종, 미리 상기시켜 주시오.
8. 대부분의 남자들은 발끝에서 머리끝까지의 세 벌이면 족하오. 줄서서 걸려있는 당신 옷들 가운데 어떤 짝이 가장 잘 맞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소?
9. 차에 기름 좀 넣으시오
10. 6개월 전에 한 일은 뭘 일이건간에 이미 공소시효가 지난 거요.
사실 7일만 지나면 다 없던 일이 되긴 하는데....
11. 혼자 생각하기에 뚱뚱하거든 제발 물어보지 마오. 대답 안할테니까.
12. 모든남자는 16색이 한계요. 예를 들자면 남자에겐 '복숭아' 같은건 색깔이 아니라 과일이오.
13. 우리는 독심술사가 아니오. 물론 그렇게 될 리도 없지만.
당신 마음 못 알아준다해서 당신을 걱정하지 않는 게 아니오.
14. '무슨 일 있어..?' 라고 물어봤을때 '아무일도 없어' 라고 대답하면 정말 우리 아무 일도 없는 줄 알고 있소.
15. 어디 갈 일이 생겼을때 아내들은 뭘 입어도 절대적으로 예쁘오. 이말 진짜요.

교회목표 하나님만이 삼과 교회의 주인	“예수! 돈으로 살 수 없어 사랑으로 얻었다” (요13:35) 갈보리교회 Calvary Presbyterian Church	교회생활지침 누가 10:37 *자원함 -섬김과 봉사 *익명성 -명예
제6권 27호	기초성경공부이수. 정장으로 예배. 남 이야기 금지	2005년 6월 26일
☎ 369- 5077. Khyber Pass Rd.(The Church of Holy Sepulchre). www.calvary.org.nz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숫자에 밝지 못해도, 어려운 공식을 외우지 못해도 하늘의 별을 셀 수 있는 눈을 가졌다면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외국말을 유창하게 하지 못해도, 그들의 문화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해도 꿀벌레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다면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인류의 시초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몰라도, 색깔 다른 콩 두개가 어떤 모양의 콩을 만들어내는지 알 수 없어도 아름드리 나무를 안아보고 놀랄 수 있다면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그림을 잘 그리지 못해도, 조각칼을 익숙하게 다루지 못해도 하늘의 구름이 무슨 모양인지 상상할 수 있고 말할 수 있다면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노래를 잘 부르지 못해도, 소리를 듣지 못해도 다룰 수 있는 악기가 하나 없어도 새와 함께 휘파람을 불 수 있다면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숫자세는 것이 서툴고, 물질에 어리숙해도 음식을 나눌 수 있다면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줄서기를 잘 못해서 매년 손해를 본다고 해도 그럴싸한 말로 다른 이들을 내 편으로 만들지 못해도 세상의 주인이 누구신지 알고 믿는다면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글쓰기를 조금 못해도, 책 읽기가 조금 서툴러도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뜻을 물을 수 있고 헤아릴 수 있고 들을 수 있다면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고 책망하기보다 용서해줄 것을 먼저 생각할 수 있다면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반대하는" 특기를 갖기보다 "찬성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나는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서로 믿어주고, 서로 희망이 되어주고, 서로 사랑할 줄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말씀따라 행하기▶
떠날때에 우리 모두는
시간이라는 모래밭위에
남겨놓아야하는
발자욱을 기억해야 한다

◀인품따라 행하기▶
나 때문에
일이 지연되는 것보다
나 때문에
일이 속히 시행되도록 하라

◀그뻘 그랬지▶ 원산 폭격
군대에서 원산폭격은 가장 쉬운 기합이었습니다. 철모에 머리박기, 수통꼭지에 머리박기, 관물대에 발 올려놓기등 방법도 다양했습니다. 원산폭격으로 머리에 딱지가 앉았어도 모두들 잘 견뎠습니다. 단순히 머리박고 뒷집지는 원산폭격을 하고는 잠도 잤습니다. 시간이 지난 지금, 힘든 기합일수록 더 아련한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욕설에 못이겨 동료들에게 충을 겨누는 세대에는 꿈도 못 꿀 군시절의 원산폭격, 그리움에 집에서 다시 해 보았습니다.



주 일 예 배

(* 표에 일어서시기 어려운 분은 앉으셔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영 광 송 Gloria	Calvary	다 갈 이
참회의 기도 Confession Pray		
용서의 선언 Proclaim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인 도 자
*찬 송 Hymn	23장	다 갈 이
*성 시 교 독 Response Reading	35 (사 35)	
*신 앙 고 백 Apostle's Creed	사 도 신 경	
교 회 소 식 Welcome & Announcements		
찬 송 Hymn	359장	
기 도 Pray		최재학 안수집사
성 경 봉 독 Scripture Reading	에스겔 37:1-10	인 도 자
성 가 대 찬 양 Choir		나무집사가성가대
설 교 Sermon	선지자 시리즈(4) "또 한 사람의 희망의 사람 에스겔"	김성국 목사
찬 송 Hymn	188장	
헌 금 기 도 Offering Pray		인 도 자
응 답 송 Response Song	'이 믿음 더욱 굳세라'	다 갈 이
축 도 Benediction		김성국 목사

(예배를 마치고 Hall에서 Tea Time을 갖습니다)

◆6,7월의 예배위원◆

일자	기 도	헌금위원	주방봉사
26	최재학	김인희	9구역
3	현석호	김중우	10구역
10	김교섭	김중원	1구역
17	김순자	김진근	
24	김영길	마경춘	2구역
31	김종건	민광호	3구역

◆7월의 교회력◆

주 일	예배와 모임
3	구역예배(8). 겨울심방
10	믿음의어머니기도회(12) 학생부Camp(11-13) Concert(16)
17	교회창립기념 전교인 운동회
31	이삭줍기주일

2005년 교회생활	*3주간 예배, 친교참석 이후에 등록 자격이 주어집니다.
1. 성경 1독만 하기(하나님 사랑)	*여러교회를 다녀 본 후 결정하셔야 바른 판단이 됩니다.
2. 전도하지 말고 대신 친절하자(이웃 사랑)	
3. 처음 만난 날 처럼(교우사랑)	
주일예배: 아동, 학생: 낮 12시 수요예배: 7:30 pm	새벽기도회: 금 6:00 청년부: 토 저녁 4시

1. "추운 날의 특별새벽기도회" <일시: 27일(월)- 1일(금). 새벽 5:55분>
*지난 22일, "동지"를 지나 밤보다 낮이 조금씩 길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아픔, 시련, 어둠을 견어내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출구에 더욱 용기와 자부심이 생기는 겨울 한복판의 새벽기도회입니다.
"새벽기도 감사다!" <개인기도를 위한 예배당 Door Open 5:20분>
2. 7월 Term Break기간, 자녀들이 집에 머무는 기간에 심방을 하고 싶습니다.
*교회에서 심방오신다는 날, 집안을 정성껏 꾸미며 정리하시던 어머니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심을 어린 마음에 가르쳐주신 어머니의 교육이었습니다. 자녀들에게 심방 예배가 거룩함과 축복의 자리임을 체험토록 부모님들의 배려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심방신청: 구역장> <심방기간: 7월 4일-22일>
3. 정기확대당회 <일시: 7월 3일(주일). 오후 2시>
4. 성경공부 개설: <인도> 박성천 목사 <일시> 매주 금 저녁 7:00 <장소> 교회
*성경공부내용: "목적이 이끄는 삶" -Rick Warren-
5. 수요예배: "민수기 강해" <수요일 저녁 7:30>
*찬양도 직접 인도해야만 하던 처음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제 수요찬양단의 은혜로 움으로 마음을 열게 된 후 말씀만 전하려 강대상에 설 수 있는 나는 이게 웬 복인지요, 웬 은혜인지요...
*민수기를 통해 배우는 하나님의 뜻, 함께하는 수요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착한 시인들▶ 산골 소년의 사랑이야기 에 민(작사.노래)

풀잎새 따다가 엮었어
예쁜 꽃송이도 넣었구요
그대 노을빛에 머리 곱게 물들면
예쁜 꽃모자 씌어 주고파

냇가에 고무신 벗어놓고
흐르는 냇물에 발담그고
언제쯤 그 애가
징검다리를 건널까? 하며
가슴을 두근거렸죠

흐르는 냇물위에
노을의 분홍빛 물들이고
어느새 구름사이로
저녁달이 빛나고 있네
노을빛 냇물위에
예쁜 꽃모자 떠가는데
어느작은 산골소년의 슬픈 사랑이야기

때로는 대중가요 가사에 Feel이
닿을때가 있습니다. 젊을 시절,
작사랑 하던 동창생이 결혼한다
는 소식에 "웨딩 케익"에 가슴이
메어지던 것처럼.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는 지금은
옛 추억을 비치는 노래에 마음이
흔들립니다.

얼마전 무심코 들려진 노래에
잃어버린 무엇이 실려있었습니
다. 닳고 닳아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는 데까지 와서야 예전 순
수함에 목말라합니다. 아무리 성
공을 위해 달려 얻는 다해도 돈으
로 얻지 못하는 것은 분명히 있
습니다. 사랑,우정,천국....
사람들 마음속에는 자기만의 아
름다운 무엇을 둘 자리는 늘 비
워두고 살아가나 봅니다.